

도시형 어항·어촌 관광자원화 실태와 개발방향 분석 -부산지역 관광객·어촌주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영표·김대식·유창일*·윤한심**·김헌태*·류청로*

부산광역시 수산행정과·*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부경대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서론

최근에 연안지역 중 특히 어항·어촌지역의 친수공간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종합개발계획에서는 친수공간을 이용한 지역개발 및 관광어항·어촌 개발에 따른 어항·어촌지역의 관광자원화 등의 경향이 새로운 어항·어촌개발의 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농림부, 1996; 이 등, 2003). 이러한 개발방식은 수산물 생산량 감소, 어가소득 감소로 인한 어업의 소득원으로서의 관광소득 증대, 도로망 정비에 따른 관광객의 접근성 용이 및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국민관광객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특히 도시형 인근 해안관광지 선호현상 등으로 관광어항·어촌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해양수산부, 2001; 해양수산부, 2003). 이런 상황에서 어항·어촌 지역의 관광자원화 개발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특히 어항·어촌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편익을 관광개발과의 교환의 대가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Lindberg et al., 1997), 또한 이 경제적 편익이 지역주민의 태도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하였다(조 등, 2002). 또한 외지인에 의한 관광영향은 관광개발 혹은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접촉에 따른 유·무형의 제효과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인식이 강조된 바도 있다(고,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부산시 어촌·어항개발방향과 정책수립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부산지역내 어촌·어항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해당지역 어촌주민의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설문(의견)조사를 수행하여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조사를 파악하였다.

자료 및 방법

설문대상 및 방법은 부산시 전체 어촌·어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박 등, 1998) 3개 권역 14개 어항의 방문객과 어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부권의 경우 칠암, 이동, 두호, 대변항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부권의 경우 다대, 압남, 하리, 민락, 미포, 청사포, 송정을 선정하였으며, 서부권의 경우 천성, 대항, 신호항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어촌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직접 설문항목에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어촌·어항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24개),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인지수준 및 태도(6개), 어촌·어항개발시 고려사항(12개), 어촌·어항개발시 개선사항(7개), 어촌·어항 개발방향(1개),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파급효과(5개) 등 총 7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기간은 2004년 11월 18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며 방문객 의견조사의 경우 총 43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63부를 회수하여 83.6%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34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어촌지역주민 의견조사의 경우 총 392부를 배부하여 335부가 회수되었으나(85.5%), 설문분석이 부적절한 설문을 제외한 313부의 유효표본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각 항목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설문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α)에 의한 신뢰도 분석, 어촌·어항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결론

설문조사 결과 중 향후 어촌·어항개발시 바람직한 개발모델에 대한 문항에서 방문객의 경우 휴양·레저형 개발(35.0%), 어촌전통문화 체험형 개발(21.2%), 수산물 판매형(20.6%)의 순이며, 지역주민의 경우 수산물 판매형(64.8%), 어촌전통문화 체험형(14.5%), 휴양·레저형(10.2%)의 순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수산물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문객의 경우에는 휴양·레저형 개발을 통한 레저공간 및 기회의 확대에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어촌·어항 개발시에는 이러한 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조화할 수 있는 개발모델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동완. 2001.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연구* 25(3): 63-80.
- 농림부. 1996. 권역별 어촌개발계획 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 박창호·노홍승·양위주. 1998. 부산광역시 해양위터프론트의 개발 및 보전. 부산발전연구원.
- 이승우·홍장원·한광석. 2003.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광익·김남조. 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해양수산부. 2001. 어촌관광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수산부. 2003. 주5일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Lindberg, K. and R. L. Johnson. 1997. Modeling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 402-424.